- 모바일 열람시에 인쇄 레이아웃을 켜주시길 바랍니다.PC로 작성한 프로필인 만큼 깨질 수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위 프로필은 포켓몬 이터널·노바의 '타케노우치 케이코' 의 프로필입니다.

포켓몬스터 이터널 · 노바

【신경독과 출혈독. 둘 중에 뭐가 좋아?】

" 그냥… 둘 다 *한 방울 씩* 먹어보고 정할래? "

@지인

짙은 자줏빛 머리카락을 한 갈래로 묶어냈다.
회색 코트와 검은 목티, 검은 바지, 검은 부츠.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걸까…….

날카로운 눈매의 선홍빛 홍채를 지닌 눈,
그에 맞춘 듯한 그의 파트너 포켓몬 세비퍼 '하부네'와
함께 맨 체크무늬의 빨간색 목도리가 인상적이다.

가방 속에는 엔트리 포켓몬 깨봉이와 스콜피의
몬스터볼, 그리고……
'취급주의! 현세 최고의 독 타입 트레이너의 독약품들?!'

— 타케노우치 케이코 XY 160.1cm

竹野内 圭子, たけのうち けいこ.
남들보다 월등하다—라고 할 정도의 12살 평균 키를 뛰어넘은 키. 만족한다고 한다!

파트너 포켓몬, 세비퍼

맹독이 배어 나오는 예리하고 잘 드는 꼬리로 재빠른 최고의 독딜러.

탈피—베놈쇼크—독찌르기

송곳뱀 포켓몬—세비퍼 성체의 길이는 평균 2.5m를 넘는다. 허나 케이코의 세비퍼는 세비퍼 간의 교배로 태어난 세비퍼.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0.8m를 남짓한다. 8번 도로에서 잡았으며 케이코의 아버지 또한 엔트리로 세비퍼를 데리고 다녀 세비퍼의 특성을 잘 아는 만큼 세비퍼와의 사이는 좋은 편, 애칭은 하부네. 꼬리의 칼은 항상 바위로 갈고 있어 날카로움이 뛰어나다. 베이지 않도록 모두 조—심! 허나 케이코의 세비퍼가 가장 좋아하는 로셀 열매를 준다면..... ~~단순하다!~~

엔트리 포켓몬, 깨봉이

쓰레기로 체내에서 새로운 종류의 독가스나 독의 액체를 만들어내는 과학자!

악취—점착

쓰레기봉지 포켓몬—쓰레기봉투가 산업폐기물과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포켓몬이 되어 다시 태어난 포켓몬인 만큼 숨을 쉬면 내뿜는 독가스를 주의하자. 허나 타케노우치 케이코, 독 포켓몬 트레이너의 삶을 10년을 걸어온 남자로..... 깨봉이의 가스를 흡입하여도 다른 트레이너와 다르게 멀쩡하다. 그야말로 베스트 프렌드! 깨봉이는 주로 그의 가방 속 몬스터볼, 아님 그냥 그 가방 자체에 들어있다고 한다. 냄새는 신경쓰지 않지만 가방 속 물건으로 다칠까봐 걱정이라고 한다. 애칭은 야부롱.

엔트리 포켓몬, 스콜피

꼬리의 발톱에서 독을 내어 먹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집념의 소유자.

전투무장—물기

전갈 포켓몬—생김새에서도 보이듯이 전갈이다. 성격은 무척이나 과격해서 케이코 또한 애를 먹었다고 한다. 꼬리와 발톱에 깃든 맹독으로 엄청나게, 실로 위험한 포켓몬이지만 추위에 약해 몬스터볼에 자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추운 날씨에는 케이코의 옷 안에나 가방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스콜피를 위해 집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외선 전등과 모래가 가득한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한다. 애칭은 스부코르.

엔트리 포켓몬, **페이검**

가늘고 튼튼한 실을 뿜어 엮어 덫을 만드는 개구쟁이!

벌레의 알림ㅡ실뿜기

실뿜기 포켓몬ㅡ처음 마주하였을 때는 방에만 나타나는 페이검의 울음소리에 놀라자빠진 케이코가 그들의 첫만남이었지만 지금은 페이검이 시도때도 없이 자의로 몬스터볼에서 나와 케이코에게 달라붙는다. 케이코도 그것이 싫지는 않은 듯. 가늘고 튼튼한 실로 상대방을 먹이로 착각하여 묶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자. 케이코는 그것이 귀엽다며 내버려둘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자. 애칭은 이부마루.

ㅡ *성격*

# 불평불만	# 투덜투덜	#조잘조잘

조잘조잘조잘… 투덜투덜……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일 수이다. 허나 옆집 소꿉친구 A양이 말하길… 이건 그저 입버릇처럼 단순 '타케노우치의 태클 일상화 참말 사건' 이다. 포켓몬 연구원을 준비하는 예민한 시기의 누나와 항상 덜렁대는 여동생 때문에 항상 남의 의견에는 태클부터 걸어버린다고…… 설령 그것이 좋은 의견이라 하여도 일단 조잘조잘조잘…… 투덜투덜…… 불평불만을 하길 일수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채로 태클을 걸거나,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2살 답지 않은 단어 선택과 문맥으로 같이 동행하던 B씨를 당황하게 하기 일수였다고…

ㅡ *장래희망*

불사신

이유는, ***독타입 포켓몬들에게 물려도 좋아ㅡ!*** 이다……. 세비퍼, 깨봉이, 스콜피 그리고 페이검의 독은 엄청난 맹독이므로 서로를 조심히 대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깨물면서, 더더욱 장난치면서 노는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고 한다.

ㅡ *특징*

1. *독이 너무 좋아 독에게 쓰러져 본 12세 남아…….* 좋아하는 건 역시 독, 관상하기. 먹어보기. 실험하기. 그냥 독을 좋아한다. 독이 좋아 독 타입 포켓몬만 잡은 게 아니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단, 그의 엔트리 포켓몬 페이검이 그가 먼저 마음을 먹고 잡은 단 한 마리이다. 나머지 세비퍼, 깨봉이, 그리고 스콜피 모두 먼저 케이코에게 다가간 것. 독을 사랑하고, 독에게 사랑받는 남자……. 그가 바로 타케노우치 케이코다.
2. 말버릇, 아니 항상 붙는 말은 *'아니,'*
3. *0109 RH+A형*
4. 2남 1남의 장남이다. 7살 차이의 누나 하나, 2살 차이의 여동생 하나. 형제들도 독타입 포켓몬을 데리고 다닌다고 한다.
5. 입맛이 상당히 까다롭다.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면 잘 입에 대지 않는다고……. 어느 날은 **음식에 정체불명의 보라색에서 검녹색 액체를 뿌려서 먹어** 모두를 경악하게 했었다.
6. 여러모로 제정신은 아닌 사람, 주변인들이 내린 한 줄 평은 가까이할 수록 귀찮은 사람이다.

7. 신기할 정도로 표정이 단 세 개로 통일 되는 사람. 평소의 기본값은 아~ 무 생각 없는 듯 입을 꾹 닫은 무표정. 다음은 태클을 걸 때 사람을 아니꼽게 눈을 흘길 때의 표정이 매크로 No.1,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목표, 관심사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었을때ー!** 나오는 가장 행복한 웃음. 이 외에는 크게 웃거나 울거나. 쉽게 즐거워하거나 쉽게 싫증 내는 등의 반응은 나오지 않는다.
8. 그의 좌우명은 *'모든 물질은 독이야. 그러니 이거 먹어봤자 안 죽어!'* 이다.
~~그러면서정체불명의액체들을벌컥벌컥마셔재끼는게가관이다~~ ~~Venom ⊂ Poison ⊂ Toxin ♡~~
~~세바퍼 페어검 스콜퍼 깨봉이 ♡~~
9. 1인칭은 보쿠(僕), 2인칭은 오마에(お前).

ー 소지품

목도리	가방	스포이드

ー 텍관

>사사게 유카 ささげ ゆか

#해물탕 #응징

케이코가 유카의 크랩과 가재군을 해산물탕 해먹으려다가 유카에게 영웅펀치를 맞고 응징 당했다.
하지만 케이코의 ~유카 네 특산물 크랩 가재군 해산물탕 해먹기작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엔도 겐코 えんどう けんこう

#무엇이든막는방패 #무엇이든뚫는창

엔도 겐코, 야와루 섬의 천상천하 반항아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 아마도! 케이코는 그런 그를 보며 생각했다. 열 두살, 아직 어린 나이. 열 두살, 아직 미성숙할 나이. 그래……겐코는 아직 어른의 맛을 보지 못한 거야. '어쩔 수 없다.' 란 생각과 함께 엔도 겐코에게 정체불명의 녹색 액체를 입에 들이 붓기 직전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것이다. 첫번째 ~엔도 겐코 어른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는 실패 했지만 아무렴 어때, 계속해서 회유하고 보듬어주면 어른의 맛을 알고 더 이상 미성숙한 반항아에서 벗어나겠지?

~~@ 독 먹어~~
~~@@ 저리가~~
~~@ 한번만~~
~~@@ 저리가란말안들려안들려나고안가안가나고~~
~~@ 독 먹어~~

>코세 미츠루카이 えんどう けんこう

#첫친구 #Poisonislove!

엇, 저 놈은…… 잠시만. 질퍽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이 자식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아아, 로드 질퍽이 사마. 저 악취에서 풍겨나오는 독가스와 유해물질… 뭘 아는 녀석이구나. 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 서로가 그렇게 통했다! 코세 미츠루카이&타케노우치 케이코. 이름도 긴 놈들의 첫만남은 내적친밀감 MAX로 시작 되었다. 그렇게 말문을 트고 서로 '독 타입 포켓몬을 좋아한다.' 라는 공통점으로 그 누구도 막지 못할 만큼의 ~독에 대한 찬양 무제한 제공 참말 사건~을 일으켰다. 그 둘이 세운 교는 독타입 포켓몬 찬양교였나? 그랬을 거다. 어ー쨌ー든ー! 케이코에게 있어 미츠루카이는 처음으로 친해져 우정을 쌓은 친구인 만큼 특별하다.